

# 이원재 1차관,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공공주택 건설 현장 점검 - 건설자재 수급 현황, 건설공사 일정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일(금) 오후 1시 45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  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피해 상황, 행복주택 입주계획 등을 점검하고,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  - 동 현장은 11월 29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겨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.
- 이 차관은 “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9일차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택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”이라면서,
  - “특히, 본 현장과 같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,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일정에 차질이 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되는 실정”이라고 밝혔다.
- 이 차관은 “정부는 운송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중”이라면서,
  - “여기 계신 현장관계자께서도 입주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보금 자리에 무사히 안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.”고 강조하였다.

2022. 12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